

한국사 속의 자기(磁氣) 관련 기록에 대한 조사 연구 (자석의 한방 응용 기록을 중심으로)

이근우

부경대학교 사학과,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 608-737

권해웅*

부경대학교 재료공학과, 부산시 남구 신선로 365, 608-739

(2013년 7월 9일 받음, 2013년 8월 12일 최종수정본 받음, 2013년 8월 15일 게재확정)

만유인력 등이 발견되기 전에, 자석은 서로 떨어진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유일한(특이한) 힘을 보여주는 마법적인 물질로 생각하였다. 그런 특성 때문인지, 동아시아에서는 자석이 약재로서도 널리 쓰였다. 이 글에서는 한국사 속의 자기에 관련된 기록 중 자석의 한방 응용에 관련된 기록을 정리하였다. 자석이 약재로서 어떤 효능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고, 자석을 약재로 하는 처방에 대한 기록,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 자석이 들어간 약제를 복용한 사례에 대한 기록을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주제어 : 자석, 자석의 한방응용, 본초강목, 조선왕조실록, 신력당, 백호인삼당, 영조

I. 서 론

한국사 속에 자기·자석에 관한 많은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저자 등이 이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이를 발표한 바 있다[1]. <Table I>은 참고문헌[1]에서 확인된 자기에 관한 기록을 연대순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 기록 속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자기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자석은 크게 항해, 측량, 천체관측을 위한 나침반으로 쓰인 사례, 금창약을 비롯한 한방의 약재로 쓰인 사례, 조선시대 후기에 실학자들이 자석의 원리를 밝힌 사례 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사 속의 기록을 조사하면서 흥미롭게 느낀 점은 자석을 한방의 약재로 썼다는 기록이 가장 많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저자 등은 이러한 자석의 한방 응용이라는 특정 분야에 대한 기록을 따로 조사하여 남겨두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미 삼국시대에도 자석은 금창(金瘡) 즉 쇠불이에 의해서 생긴 상처를 치료하는 대표적인 약재였다. 이 글에서는 한방에서 자석이 어떤 약효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었는지, 또한 어떤 증세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찾아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한방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약효와 처방법을 『본초강목(本草綱目)』·『동의보감(東醫寶鑑)』 등을 통해서 정리한 다음, 실제로 자석을 포함한 약제를 복용한 사

Table I. 한국사 속의 자기 관련 기록 일람표

출전	시대	내용	용도	비고
삼국사기	통일신라시대	자석(磁石)	금창약(金瘡藥)	669년
조선왕조실록	조선시대	범철(泛鐵)·윤도	측량용 나침반	1451, 1712년
조선왕조실록	조선시대	지평환(地平環)	천체관측용	1490년
조선왕조실록	조선시대	자석	약재	1766년
조선왕조실록	조선시대	윤도(輪圖)	항해용 나침반	1790년
오주연문장전산고	조선시대	자석	자석과 지남의 원리	19세기 중엽
기축체의	조선시대	자석	자석의 원리	1836년 간행

© The Korean Magnetics Society. All rights reserved.

*Corresponding author:

Tel: +82-51-629-6362, e-mail: hkwon@pknu.ac.kr

례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서 확인해 볼 것이다. 다만 자석을 약재로 언급한 것은 이미 『신농본초경집주(神農本草經集註)』(陶弘景, 南朝 梁)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삼국시대 이래로 약재로 쓰기 시작하였을 것이지만,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의 문헌이 극히 부족한 관계로 조선시대의 사료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음을 밝혀둔다.

II. 자석의 약효와 처방에 대한 기록

자석(慈石)의 약효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밝혀놓고 있는 문헌으로는 명(明)의 이시진(李時珍)의 『본초강목(本草綱目)』(1596년)을 들 수 있다. 먼저 자석이 풍습(風濕)의 사기(邪氣)에 의하여 온몸이 저린 증상(周痺), 관절이 아프고 물건을 들지 못하는 증상(關節中痛)을 치료한다고 하였다[2]. 나이가 자석이 신기(腎氣)를 보하고 놀란 것을 그치게 하며[3], 칼 따위로 상처를 입어 장이 빠져 나왔을 때 다시 들어가게 할 수 있으며[4], 자궁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증상을 치료하는[5] 등 실로 다양한 효능을 언급하고 있다. 『동의보감』에도 자석은 신기(腎氣)와 신허(腎虛)를 기르고 더하며,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운 데 쓴다고 하였다[6]. 또한 약재 중 석부(石部) 즉 돌 종류의 약재 55종을 설명하면서 자석(磁石)과 자석모(磁石毛)를 들고 있다. 자석은 신장(腎臟)을 기르고 골기(骨氣)를 강하게 하며, 정(精)을 더하고, 가슴에 열이 나고 답답한 증세(煩)를 없애고 이롱(耳聾)을 고치며, 관절(關節)을 통하게 하고, 옹종(腫)과 서루(鼠瘻) 경핵(頸核) 후통(喉痛)을 삭인다고 하였다. 한편 자석모는 자석에 붙어 있는 기는 털처럼 생긴 것인데, 신(腎)을 기르고 기(氣)를 더하고 정수(精髓) 신허(腎虛) 이롱(耳聾) 목혼(目昏)을 보전(補填)하는데, 그 효능이 더욱 뛰어나다고 하였다[7].

이처럼 한방에서는 자석에 다양한 약효가 있는 것으로 여겼고, 동시에 자석을 사용한 여러 가지 처방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신력탕(腎瀝湯)과 지황탕(地黃湯), 백호탕(白虎湯) 등을 들 수 있으며, 그밖에도 다양한 종류의 처방이 있다[8].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신력탕(腎瀝湯)[9]

신장풍(腎臟風)으로 인한 언어장애나 말더듬을 치료하는 데 쓰는 한의학 처방이다[10]. 사용되는 약제는 양신(羊腎) 1구(양쪽), 생강, 자석, 현삼, 백작약(白芍藥), 백복령(白茯苓), 황기(黃), 천궁(川芎), 오미자, 계심(桂心), 당귀(當歸), 인삼, 방풍(防風), 감초, 지골피(地骨皮)를 쓴다[11]. 이 신력탕과 비슷한 것으로는 자석양신환이 있다[12]. Fig. 1은 『보제방』 [13]에 기록되어 있는 자석을 이용한 대표적인 약제 중의 하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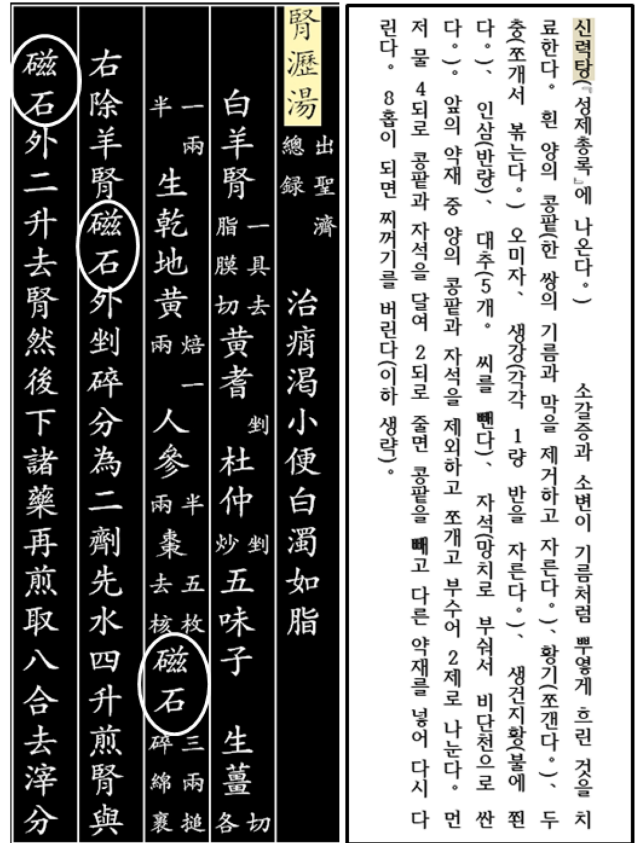


Fig. 1. (Color online) 『보제방』에 기록되어 있는 자석을 이용한 대표적인 약제 중의 하나인 신력탕에 관한 기록(Description of the SHINRYUKTANG which is a typical magnet-containing medicine for kidney filtering failure. The word enclosed by circle means magnet).

신력탕에 관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2. 백호탕(白虎湯)

백호탕은 폐(肺)의 기운이 힘들고 상하였을 때 쓰는 약제이다. 열은 있지만 춥지는 않으며 조갈증이 나는 경우에도 쓸 수 있다. 약재로는 용골(龍骨), 백석영(白石英), 백복령(白茯苓), 상근백피(桑根白皮), 인삼, 백합(百合), 자석, 현삼(玄蔘), 대두(大豆)를 쓴다[14].

3. 자석산(磁石散)

자석산은 정신을 안정시키고 상승된 간장의 양기를 내리며 신장을 보호한다. 또한 숨이 찬 것을 멈추고 귀와 눈을 밝게 한다. 머리가 어지럽고 아플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할랑거릴 때, 수면 장애, 전간, 귀울음, 귀가 들리지 않을 때, 숨가쁨 등에 사용한다. 한편으로 자석산은 탈항(脫肛)[15], 자궁(子宮)이 들어가지 않는 증세[16] 등 여러 가지 증세에 폭넓게 사용하는 약제이다. 자석을 불에 달구어 식초에 담그기를 여러

번 거듭한 다음 수비(水備)하여 복용한다.

4. 보신자석환(補腎磁石丸)[17]

보신자석환은 신장의 기가 약해서 눈이 흐려지고 눈동자에 흰점이 생길 때 이용한다. 구기자, 술에 찼 길쭉구씨, 닥나무 열매, 술에 담갔던 산딸기, 석곡, 술에 적셔 약한 불에 건조한 육종용, 오미자, 찼 지황, 여러 번 불에 달구고 식초에 담그기를 반복한 **자석**, 술로 법제한 새삼씨, 침향, 소금 등을 분말로 만들어 꿀과 섞어 알약을 만든다.

5. 침향자석환(沈香磁石丸)[18]

상초(上焦)가 실하고 하초(下焦)가 허하여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면서 잘 들리지 않는데 쓴다. 즉 정신적으로 과로를 하거나 심하게 긴장을 하면 상체 쪽은 열이 많아지고 하체 쪽은 냉하게 된다. 즉 상체는 기능이 항진된 상태가 되지 만 하체는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다. 이명과 이롱에도 쓴다.

약재는 천과과(川巴戟), 호로과(葫蘆芭), 감국화(甘菊花), 조피열매(川椒), 산수유, 마(山藥), **자석**(火醋 7차례), 양기석(陽起石), 부자, 침향(반 兩), 순비기나무열매(蔓荊子), 소금(靑鹽)을 쓴다.

6. 냉보환(冷補丸)[19]

냉보환은 신음(腎陰)의 부족으로 입이 건조하고 시력과 청력이 저하되며 허리가 아플 때 이용한다. 약재는 천문동, 맥문동, 생건지황(마른지황), 숙지황(찼지황), 우슬(쇠무릎풀), 백작약(집합박꽃뿌리), 지골피(구기뿌리껍질), 석곡, 현삼, **자석**, 침향을 쓴다.

7. 보골지환(補骨脂丸)[20]

일을 많이 하여(勞虛) 이롱(耳聾)이 생긴 것을 치료한다. 약재는 토사자(兔絲子), **자석**(磁石), 당귀(當歸), 두충(杜), 날개(辣桂), 백지(白芷), 백질려(白藜), 숙지황(熟地黃), 창포(菖蒲), 천궁(川芎), 총백(白), 파고지(破古紙), 호로과(葫蘆芭), 천초(川椒)이다.

8. 사신탕(瀉腎湯)[21]

여러 가지 임병(淋病)으로 소복(小腹)이 심하게 불러 오르는 것을 치료하고 신(腎)에 실열(實熱)이 있어 허리와 등이 굳어서 잘 풀어지지 않고 소변이 황색이고 혀가 마르고 사지(四肢)가 청흑색(靑黑色)으로 변하고 이롱(耳聾)이나 몽설(夢泄)이 있는 등의 증상을 치료한다.

자석, 망초(芒硝), 대황(大黃), 석창포(石菖蒲), 복령(茯), 생지즙(生地汁), 현삼(玄蔘), 황금(黃芩), 감초(甘草), 세신(細辛)을 쓴다. 동의보감에는 사신탕을 달이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22].

이밖에도 신(腎)의 실열(實熱)과 소복(小腹)의 포만감 등을 치료하는 청원탕(淸源湯)[23], 소갈증이나 하초(下焦)가 냉하고 소변이 뜨물같은 것을 치료하는 육종용탕(肉蓉湯), 보허보골지(補虛補骨脂)[24] 등을 비롯하여 실로 다양한 종류가 있다. 자석을 사용하는 처방을 보면 모두 신(신장)의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신(신장)의 기운을 보해야 할 때, 혹은 심열(心熱)을 낮추거나 상초(上焦)가 실하고 하초가 허하여 생기는 증세에 사용됨을 알 수 있다.

III. 복용의 실례

각종 한방의학서에 보이는 자석을 이용한 처방 중에서 실제로 복용한 사례를 『승정원일기』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신력탕과 인삼백호탕을 들 수 있다. 이 두 처방을 중심으로 복용의 실례와 자석의 효능에 관하여 논의한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신력탕

실제로 신력탕을 복용한 사례로는 영조와 순조의 대왕대비인 정순왕후를 들 수 있다. 1761년(영조 37년) 12월 4일 오후에 도제조(都提調) 홍봉한(洪鳳漢), 제조(提調) 한익모(韓翼), 부제조(副提調) 홍명한(洪名漢), 의관(醫官) 김리형(金履亨) 등이 영조의 성후(聖候)를 알아보기 위하여 입시하였다. 홍봉한이 몸의 상태를 묻자, 영조는 종일 누워서 지냈으며 뭍은 담이 있고 변소를 무수히 드나들었으며,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니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였다. 또한 변은 선 된장 같아서 변을 보고도 불쾌하였으며, 바지 속에 수건을 깔았다고 하였다. 이에 김리형이 영조를 진맥하고 나서 맥이 고르지 않으며 체한 기운이 있다고 하고 어제 대전에 앉아 계실 때 찬 기운 때문에 생긴 증상이라고 하였다. 탕제를 올리고 나자 영조는 신력탕(腎瀝湯)도 효험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홍봉한은 이 철보(李喆輔) 최진해(崔鎭海)가 모두 신력탕의 효험을 크게 보았다고 하였고, 영조가 그러냐고 되물었다[25].

이처럼 국왕에 대한 진찰과 건강 관리는 ‘약방(藥房)’ 즉 내의원(內醫院)이 담당하였다. 영조 당시 영의정이었던 홍봉한이 내의원 도제조를 겸직하여 총책임을 맡았고, 내의원의 실무적인 운영과 관리는 승지가 겸직하는 부제조가 맡았다. 승지들은 닷새마다 한번 씩 이루어지는 문안진후(問安診候)에 어의와 함께 입시해서 국왕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묻고 또한 진맥 등을 통하여 세밀하게 점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매일 국왕의 안부가 확인되었다.

현종은 재위 15년 동안 49회 내의원 입진을 받았고, 숙종은 재위 46년 동안 865회, 경종은 재위 4년 동안 180회, 영

조는 재위 52년 동안 7,284회에 걸쳐 입진을 받았다. 특히 영조 49년부터 승하하는 52년까지 4년 동안은 무려 1,817회(연평균 454회)의 입진을 받았다[26].

영조는 대보탕(大補湯), 건공탕(建功湯) 등 많은 약제를 복용하였는데, 신력탕도 여러 차례 복용하였고, 그 효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그렇지만 신력탕은 특별한 때만 복용하는 약으로 가볍고 쉽게 쓸 수 없었다. 영조가 신력탕이 건공탕보다 못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의관 이태원(李泰遠)이 자석(磁石)이 '순하기도(順下氣度)'의 효능이 있다고 하였다. 즉 자석이 몸 속의 기운을 순조롭게 아래로 내린다는 것이다. 다시 영조가 자석이 어떤 것이냐고 묻자, 이태원은 자석이 따뜻하기도 하고 차기도 하며 말이나 걸음걸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로운 약재라고 하였다. 이에 영조는 나를 보하는 약재로는 으뜸이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영조는 이 시기에 풍으로 말과 걸음걸이가 불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조가 간간히 어지러운 증세가 있자 신력탕을 복용할 것을 권하면서, 이 약제에는 생강과 인삼을 많이 들어가 있어서, 비록 머리로 올라가는 기운이 있어도 충분히 진정시킬 수 있으며, 또한 기와 혈을 동시에 보하는 약제이므로 원기를 보하고 비위(脾胃)를 도우면, 담(痰)이 저절로 해소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자석을 포함하는 신력탕은 기가 머리로 올라가서 어지러운 증세가 있을 때 그 기운을 아래로 내려서 치료할 수 있는 약제로 기록되어 있다.

2. 인삼백호탕(人蔘白虎湯)

백호탕은 상한(傷寒)으로 큰 열은 없으나 입은 조갈증이 나며 마음이 어지럽고, 등에는 가볍게 오한이 드는 증세를 치료하는 약제이다[27]. 이 약제를 복용한 사례로는 효종을 들 수 있다. 효종이 갈증을 느낀다고 하여 먼저 황금탕을 복용하였는데, 그런데 쾌차하지 못하자 다시 백호탕을 복용하는 과정이 『승정원일기』에 자세하게 나타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효종 9년 3월 7일, (전략) 그날 곧 약방에서 의론하여 효종에게 아뢰기를, 황금탕은 오로지 폐의 열을 치료하는 약제인데 여러 첩을 드시고도 아직 쾌차하지 못한 것은 위열(胃熱)이 다스려지지 않은 때문인 것 같으니, 인삼백호탕에 맥문동 황련 생지황을 조금 더 넣어 4~5첩을 써서 함께 다스려야 마땅할 것 같다고 하고 이 약 3첩을 먼저 들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에 효종이 허락하였다[28].

3월 9일에 다시 약방에서 인삼백호탕을 며칠 드신 후에 갈증이 줄어들어 효험이 있는지, 오늘 약이 떨어지는데 더 지어 올릴 것인지를 물었다. 효종이 이에 대하여 백호탕이 효험이 있다고 하고 더 지어 올리라고 전교(傳敎)하였다[29]. 3월 12일에 인삼백호탕을 연이어 드신 후에 갈증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를 묻고 추가로 지어올린 3첩이 오늘 떨어지게 되는데 더 지어 올릴지 아니면 다른 약을 의론할지를 여쭙었다. 이에 대하여 효종은 거의 평상시와 같아졌다고 하고 더 이상 약을 올리지 말라고 하였다[30].

그밖에도 『승정원일기』에 자주 보이는 약제로 익기탕(益氣湯), 양위탕(養胃湯), 건비탕(健脾湯)에 이어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지황탕(地黃湯)이다. 지황을 주약재로 하는 지황탕에도 역시 자석이 들어간다[31]. 지황탕은 소신력탕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32].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황탕에는 자석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V. 맺음말

한국사 기록 속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자기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자석의 한방 응용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방에서는 자석이 다양한 약효를 가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신(腎)의 이상으로 말미암은 증세를 치료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곧 자석은 한방에서 오행(五行) 중 수(水)에 해당하며 오장(五臟) 중 신(腎)을 관장하는 것으로 여겼으며, 신의 기운을 보하거나 신의 이상으로 생기는 증세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심열(心熱)을 가라앉히는 등심(心)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대표적인 약제로는 신력탕, 지황탕, 인삼백호탕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자석이 든 약제를 효종이나 영조와 같은 조선의 군주들이 실제로 복용한 사례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1] 이근우, 권해웅, 한국자기학회지 22, 142 (2012).
- [2] 李時珍, 『本草綱目』, 권3상, “磁石, 周痺風濕肢節中痛.”
- [3] 李時珍, 『本草綱目』, 권4하, “磁石散, 養腎止驚.”
- [4] 李時珍, 『本草綱目』, 권4중, “慈石, 金瘡腸出納入.”
- [5] 李時珍, 『本草綱目』, 권4하, “磁石, 子宮不收名 痲疾, (하략).”
- [6] 許浚, 『東醫寶鑑』 內景篇 권3 單方, “磁石, 養益腎氣腎虛耳聾目昏皆用之.”
- [7] 許浚, 『東醫寶鑑』 湯液篇 권3 石部, “磁石養腎臟強骨氣益精, 除煩療耳聾, 通關節, 消癰腫鼠瘻頸核喉痛.”, “磁石毛, 養腎益氣補填精髓腎虛耳聾目昏, 功用更勝.”
- [8] 『古今圖書集成』 醫部에는 자석을 약제로 쓴 118종의 처방을 확인할 수 있다(<http://www.krpa.co.kr/pcontent> 醫部集成). 『동의보감』 에도 이롱(耳聾)을 치료하는 자석양신환(磁石羊腎丸), 보골지환(補骨脂丸), 익신산(益腎散), 소신산(燒腎散), 신체가 허약하여 귀가 잘 안들리는 증상(耳重聽)에 지황탕(地黃湯) 등이 보인다(권2, 耳聾).
- [9] 신력탕은 英祖가 여러 차례가 복용한 바 있다(『承政院日記』 英祖 42년 4월 19일조).

- [10] 朱櫛, 『普濟方』(四庫全書), 권180, 腎瀝湯.
- [11] 각 약재의 구체적인 분량 및 조제방법은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가 아니므로 생략하였다.
- [12] 자석, 총백, 목통(으름덩굴), 천궁(궁궁이), 백출(삼주), 천초(조피열매), 조옥(대추의 과육), 방풍, 백복령(흰 솔풍령), 세신(죽두리풀), 서여(마), 원지, 오두, 목향, 당귀, 녹용, 토사자(새삼의 씨), 황기, 육계, 숙지황(썬 지황), 석창포를 쓴다.
- [13] 중국 명나라 朱櫛(周定王), 滕碩, 劉醇 등이 15세기 초에 편찬한 의서로 168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명나라 이전의 의서와 기타 관련된 서적을 광범위하게 모아 분류 정리한 것이다. 『四庫全書』에 수록되어 있다.
- [14] 『聖濟總錄纂要』(四庫全書) 권13, 白虎湯.
- [15] 『仁齋直指』(四庫全書) 脫肛證治.
- [16] 『世醫得效方』(四庫全書) 磁石散.
- [17] 『普濟方』(四庫全書) 권29, 補腎磁石丸.
- [18] 『玉機微義』(四庫全書) 권35, 沈香磁石丸.
- [19] 『普濟方』(四庫全書) 권29, 冷補丸.
- [20] 허준, 『동의보감』 外形篇 권2, 補骨脂散.
- [21] 『備急千金要方』(四庫全書) 권59, 瀉腎湯.
- [22] 허준, 『동의보감』 內景篇 권4 小便 寫腎湯.
- [23] 『三因極一病證方論』(四庫全書) 권8, 清源湯.
- [24] 『本草綱目』(四庫全書) 권3하, 補虛補骨脂.
- [25] 『承政院日記』 영조 37년 12월 14일, sjw.history.go.kr에 의함 (이하 같음).
- [26] 김범, 『왕의 건강관리』, 『승정원일기를 읽는다』, 경향신문 2006년 10월 10일자.
- [27] 『傷寒論注釋』(四庫全書) 瓜蒂散方.
- [28] 『承政院日記』 효종 9년 3월 7일. 再啓曰, 卽伏承大勢減歇之後, 尙未快差, 湯藥則或仍或改議處之教, 臣等不勝悶慮之至. 卽與趙徵奎·朴頴及諸御醫等商議, 則前進御黃芩湯, 乃專治肺熱之劑也, 而連進累貼, 終未收快效, 似是胃熱未治而然也. 人蔘白虎湯, 加麥門冬二錢, 黃連·生地黃各一錢, 連用四五貼兼治宜當云, 此藥三貼, 爲先劑入, 何如? 答曰, 依啓.
- [29] 『承政院日記』 효종 9년 3월 9일. 藥房都提調元斗杓, 提調許積, 副提調趙啓遠啓曰, 伏未審數日來, 聖候調攝, 何如? 再昨之劑入人蔘白虎湯, 連日進御後, 渴候有漸減之效耶? 此藥當盡於今日, 加劑入乎? 敢稟. 傳曰, 此藥似爲有效, 加劑入.
- [30] 『承政院日記』 효종 9년 3월 12일. 藥房都提調元斗杓, 提調許積, 副提調趙啓遠啓曰, 風雨連宵, 伏未審聖候調攝, 何如? 人蔘白虎湯連進之後, 煩渴之候, 幾分減歇耶? 追劑入三貼, 當盡於今日, 此藥加劑入乎, 更議他藥乎? 敢稟. 答曰, 幾至如常, 勿爲劑入.
- [31] 지황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涼血地黃湯 六味地黃湯, 清心地黃湯, 獨活地黃湯, 犀角地黃湯, 生地黃湯, 荊防地黃湯, 升麻地黃湯 등이 있다(www.hanndocor.com 및 sjw.history.go.kr).
- [32] 『承政院日記』 영조 42년 4월 28일. “上曰, 地黃湯可謂小腎瀝.”

Survey on Records about Magnetism in Written Korean History (Records Regarding the Applications of Magnet for Oriental Medicine)

Kun Woo Rhee

Department of Histor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608-737, Korea

Hae-Woong Kwon*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608-739, Korea

(Received 9 July 2013, Received in final form 12 August 2013, Accepted 15 August 2013)

Until the discovery of universal gravitation, a magnet had been considered to be a unique and magical stuff which exhibited an interacting force between two objects separated afar. Perhaps because of this belief, magnets were used widely as a medicinal stuff in East-Asia. In the present article, the records regarding the applications of a magnet for oriental medicine in written Korean history were surveyed. The records were categorized in terms of efficacy, prescription, and clinical case of taking-medicine. The records revealed that a magnet was used as an important component in the medicine for curing kidney filtering failure. Magnet was also prescribed to heal heart problems. Typical magnet-containing medicines included the SHINRYUKTANG, JIHWANGTANG, and INSAMBAEKHOTANG. Interestingly, it was revealed that some of the kings (Hyojong, Yungjo) in the era of Josun dynasty (1392-1910) believed the efficacy of the magnet-containing medicine and took it for curing their health problems.

Keywords : magnet, magnet-containing medicines, *Compendium of Materia Medica. Annals of Joson dynasty.* Decoction of kidney filtering (SHINRYUKTANG), Decoction of white tiger with jinseng (INSAMBAEKHOTANG), King Yongjo